

욥기

세션 2: 낱자 및 저자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 낱자 및 저자입니다.

책과 저자 없음 [00:21-1:37]

잠시 욥기의 낱자와 저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내가 그 줄을 소개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여러 책을 보고 그 책의 연대와 저자에 대해 묻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책이 없었고 고대 세계에는 작가가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책을 쓰는 작가는 정말 없습니다. 저자 대신 말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글을 쓰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서를 씁니다. 아마도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또는 그와 유사한 것, 심지어 밀랍판에 기록된 문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세계에는 책이나 작가가 없습니다.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 [1:37-2:45]

고대 세계는 청각이 지배적인 세계입니다. 청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 정보를 받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권위 있는 말이 그렇게 나온다. 그들에게 말하고 듣는 메시지는 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자는 물론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매우 다른 세상입니다. 저자와 책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대화가 속한 세계에 있는 대신 우리 세계에 대화를 강요했습니다.

권위 있는 음성[2:45-4:13]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책은 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책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책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지만 책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두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 중 일부는 문서, 개별 계정, 개별 예언 및 개별 시편으로 문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책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책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소통 과정을 시작한 권위자들과 굳건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실제로 편집되기 전에 수세기 동안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과거의 권위 있는 목소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과정의 시작이 아니라 과정의 끝에서 옵니다. 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책으로 끝납니다.

책으로서의 읍 [4:13-4:55]

읍은 예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읍기에는 문학적 구성인 것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친구의 말과 다른 친구의 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 조각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읍기는 실제로 책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구약성경에서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이거나 유일한 책일 수 있습니다.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에서 글쓰기 [4:55-6:44]

물론 지금 우리는 읍의 전통, 읍의 이야기, 이전에 존재했을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러한 것들 중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고도로 구성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도덕과 언어와 청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 수준의 글을 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과 직업으로 꽤 글을 읽을 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필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것도 읽거나 쓰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조금 배웠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외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는 동안,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어딘가에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그것을 잃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 언어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고대 세계에서 읽고 쓰는 것이 그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사회와 문화의 운영은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아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방법을 아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 [6:44-7:51]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법적 요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가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써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만큼 가깝지 않은 경우, 그들은 그것을 하도록 필사자를 구할 것입니다. 기록된 문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전통 중 일부가 나중에보다는 더 일찍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필사 기록 보관소에 있고, 아무도 그것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기록된 경우에도 서기관은 복사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욥 [7:51-8:44]

따라서 매우 다른 문화이고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입니다. 욥기의 연설은 매우 글이 많은 연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즉시 공격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화려한 산문이고 때로는 일종의 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교한 수준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연설을 문학적 구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욥의 사건[초기]; 욥기 [후기] [8:44-10:58]

따라서 우리는 저자와 욥기의 날짜에 대해 실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와 책이 고대 세계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용인되지 않는 레이블인 경우 책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글썬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그 책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 쓰여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욥이 주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후기가 아닌 초기에 살고 있다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문학적 초점이 이전보다는 이후에 있다는 징후도 책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욥이 아주 이른 시기에 사람으로 기록되더라도 그것이 그 책이 그 초기에 기록되었거나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초기에 만들어진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합시다. 사람이 빠를 수도 있고 구성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기에서 그가 초기 시대에 살았다는 특정 지표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책이 초기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kesitah* 라는 돈의 단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우리는 이전 기간에만 그 돈의 단위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외부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작은 항목이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Chaldean과 Sabeian과 같은 일부 습격 파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 그것은 후기가 아니라 초기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비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10:58-12:43).

어떤 이들은 언약이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이 모세 이전의 시나이 이전을 의미하는 이른 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욥이 족장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 사제로 봉사하는데, 그것은 이전 문제로 일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책은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약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이스라엘 밖의 다른 사회에서는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부족 문화에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낱자를 식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욥은 우스 땅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세부 사항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닌 인물에 초점을 맞춘 책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성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작곡일자 [12:43-13:12]

따라서 책의 구성 날짜는 사건 날짜와 다른 날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으로부터 책의 날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이전보다는 이후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서로서의 읍: 오래 지속되는 진리 [13:12-14:43]

이상으로 우리는 읍기가 지혜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의 본질은 진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리라는 지혜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것을 구두로 생각하든 글로 생각하든, 책으로 생각하든 문서 모음집으로 생각하든, 문학적 용어로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는 수사학적 용어로,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든 비-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든, 초기 또는 후기에 상관없이 그것은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 교육을 위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지혜 교육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책 자체를 읽는 방법에 차이를 만들지 않고 낱자와 저자의 문제를 제쳐두어도 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옹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 낱자 및 저자입니다. [14:43]